

편과는 며칠 전부터 의견일치를 보았던 터였지만 그렇다고 쉽게 복덕방을 찾아가지 못한 것은 16평의 작은 아파트에 서린 애정. 순전히 그 애정 때문이었다. 현시세에도 못 미치는 월값으로 아파트가 팔려나가긴 했지만 지금의 사정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던 남편과 그녀는 그것마저도 어찌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사를 하기까지 한달이라는 여유만 달랑 남아있었다. 한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다음날 이씨 아줌마의 전화를 받았다.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쇼핑몰이 생기더라도 기존노점상들은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파트 민원이라는 것도 그와 함께 아무 문제거리가 안될거라는 것이었다. 리어카를 똑같이 규격화하고 예전과는 달리 깨끗한 환경으로 쇼핑몰의 이미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업주 측이 제시하는 리어카 모델을 이용하는 것을 지역연합회가 받아들이면서 다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두달이 넘도록 농성을 하느라 고생했다며 적지 않은 금액을 위로금으로 내놓을 거라는 소식도 있었다. 놀라운 결과였다. 위로금은 리어카를 다시 만드는 비용으로 쓰일 것이며 남은 돈은 지역연합회 회비와 지부 회비로 환원한다는 것이었다. 이씨 아줌마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다시 장사를 하라고 권유하였다. 하지만

이씨 아줌마가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사는 곳에 이치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기적인 생각에 가장 힘들 때 고개 돌려 외면한 그녀가 무슨 낫으로 다시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전화를 끊고 쓸쓸한 마음에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리자 까닭 모를 쓴 웃음만 나왔다.

전세방을 알아보기 위해 이웃한 동네에 가보았지만 겨울이라 그런지 나와있는 방이 몇 안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방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며칠째 방을 구하러 다닌 그녀는 이제 지쳐가고 있었다. 방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사하기까지의 준비를 생각하면 그것도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지금의 심정으로서는 아무런 의욕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도 이씨 아줌마의 전화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줌마의 고마운 제안을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다시 장사하라는 따뜻한 말씀이었지만 그녀도 도저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보니 장사고 뭐고 모두 가당찮은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다른 것은 모두 운명에 맡긴다하더라도 애진작에 농성을 함께 하지 않은 미안함이 뒤늦은 후회로 그녀의 가슴을 후려치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결과적으로 승리한 싸움이기엔 욕심을 부려대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은 그럴만큼 사람에 대한 도리마저 저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를 계속 괴롭히는 것은 한겨울의 온돌방 같은 이씨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내버려둘 것만 같은데 이씨 아줌마의 계속 되는 권유는 마르지 않는 우물 처럼 집요하게 따라 나왔다.

여러 가지 흠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로 세 식구가 살아가기엔 별 무리 없는 방을 구해 이사를 하기로 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와는 버스로 30분정도의 차이가 나는 조금 떨어진 동네로 옮기기로 하면서 이젠 빨리 이사갈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얼굴에서 떨어진다고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결 짐을 덜어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해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해보는 것이었다. 아무런 기대없이 걸다보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한겨울의 고통스럽기만 한 바람도 멈춰지지 않을까. 수많은 벼 사이를 떠돌아다니다 헤아릴 수 없는 조각으로 흩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길 그녀는 이삿짐을 싸면서 입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어 보았다.

2001년 전노련의 투쟁을 찾아서

- ▶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들의 인권 찾기 _ 서지은
- ▶ 도시빈민활동가들의 역할과 임무 _ 최인기
- ▶ 제대로 된 투쟁!! 승리하는 집회를 만들자 _ 최인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들의 인권 찾기

진주노련 사무차장 _ 서지은

I 들어가며

지난 시기 IMF 환란 이후 실업대란과 정부대책의 한계는 수많은 저소득 도시빈민을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부터 소외 되어왔으나 자활적 생계수단으로서 노점상으로 나선 저소득 도시빈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도시빈민이라는 이름은 주로 철거민, 노점상, 일용근로자들이 그 대표적인 계층으로 분류된다. 다행히 진주에는 아직 철거민의 숫자는 극소수에 달하지만 도농 복합적인 지역의 특성상 실업자뿐만 아니라 인근 농촌으로부터 유입된 노점상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진주시 중앙시장은 서부경남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지역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서의 노점이 아니라 노점상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품물시장으로 노점상을 양성화시키고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노점을 통해 서민들에게 저가의 상품을 공급하는 등 노점상의 여러 가지 순기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러한 노점상에게 과연 인권이라는 이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법상 노점이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질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 테두리 밖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자체가 사치스럽게 들릴지 모른다.

노점상을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기 보다 단속의 대상, 철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서 노점상 인권문제의 제고가 필요할 듯 하다.

먼저 진주지역 노점상들의 현황과 경제활동 규모,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적 측면을 살펴보고 사회의 한 담당자로 살아가고 있는 노점상들의 인권 피해 사례와 그리고 대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II 진주지역 노점상 현황과 사회적 순기능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중앙시장을 표본으로 노점상의 현황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노점상 현황과 경제활동 규모

1) 진주지역 노점상 현황

노점상들은 거리의 일부를 차지하여 혹은 이동을 하면서 값싼 소비재(공산품, 농산품, 수산물과 기타 식품 및 음료 등)를 판매하는 도시빈민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점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를 한다. 이러한 노점상의 발생원인을 60-70년대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현상 속에서 주되게 파악했으나 최근에는 자본구성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산업 재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증가에 따라 방출된 실업 노동자층 가운데 일부가 도시노점상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

노점상은 불균형하게 성장해온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서 하부 유통체계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의 담당자로 그의 미성을 인정받는다.

진주 중앙시장에는 다음과 같이 노점상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새벽시장의 노점상이다. 지역적 특성상 인근 농촌에서 생산한 물건을

중간 매매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에 나선 노점상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평균 15년이 넘게 고정적으로 장사해온 전통 노점상이 있다. 이들도 자리를 잡고 있는 고정 노점상인과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하는 이동 노점상으로 나뉘어 있다. 중앙시장과 그 인근 간선도로변만 해도 500여명의 노점상들이 좌판하나에 하루 하루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다.

2) 경제활동 규모

연간 경제활동 규모는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체적으로 수치화 해보면

▷ 노점상 500여명의 일일매출액 15,000,000원 = 500명×1일 평균 매출액 30000원

▷ 연관산업 500여곳의 일일매출액 15,000,000원 = 500명×1일 평균 매출액 30000원

▷ 노점상관련 연평균 경제활동 규모

▷ 노점상의 장사일수는 비상수기, 폭염 및 혹한기에는 장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대체로 연평균 200일을 넘지 못한다는 현실에 기초해 볼 때

▶ 노점상을 통한 연평균 경제활동 규모는

(노점상 1일 평균 매출액 + 연관산업 1일 평균 매출액)×월평균 장사일 20일×10개월 = 6,000,000,000원에 이른다.

2. 노점상의 사회적 순(긍정적인)기능

노점상의 단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노점상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도시미관저해, 교통도로 질서 혼란, 국민 보건 위생 침해 등이 그것인데 사실상 이는 노점상 발생에 대한 근본원인은 외면하고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이 발생해서 생기는 순기능을 간과한 결과이다. 노점상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는 다양한 문화의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예는 다음에서도 확인된다. 과거 80년대를 기억해보면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노점상의 단속이 강화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서 관광을 할 때는 자기가 늘 보아오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풍물을 보고 싶어한다. 외국의 경우 대도시내의 이탈리아 마켓, 차이나타운 등이 관광의 명소가 된지 오래다. 특히 프랑스의 세느강 주변의 책 노점상을 '부끼니스트'라 부른다. 이곳은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된지 오래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노점상을 지역의 명소로 혹은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즉 관광객은 노점상의 무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구경한다. 이와 같은 '바로 잡아야 할 무질서'와 '허용 되어야 할 특색'이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견해가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올림픽 기간 중 많은 관광객들이 남대문시장이나 이태원에 있는

노점형태의 시장을 즐겨 찾은 바 있으며 서울 중구의 황학동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주요한 볼거리로 관광 가이드에 주요한 상품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득하고 싶은 것이다. 노점상은 감추어야 할 무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살려야 할 관광자원의 일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도시는 기능으로 볼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머리속에 이미지로 남는다. 아름다운 도시, 좋은 도시는 그 이미지를 줄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장소의 시간의 누적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 장소가 곧 관광의 명소로 기억되고 풍물로 남는다. 노점상이 있는 곳 몇 곳을 선정하여 특색 있는 장소로 보존하는게 노점상 양성화의 한 방법이다. 이용자가 이미 그곳에 노점이 있는걸 알고 찾아오는 비율이 높을수록 명소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업 문화의 거리를 공동체 문화의 거리로

상업 문화의 거리를 공동체 문화의 거리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리에서 문화 공간의 역할을 고려하여 주민의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각종의 노점상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외국문화에 찌들어 있는 척박한 거리에 서민들의 공동체 문화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관람이 아닌 함께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리를 중심으로 주변에 거

주하는 실직자와 불우한 이웃을 고려하여 인근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지원하거나 지금 본회에서 해마다 진행해오고 있는 김장행사, 그리고 정월대보름에 벌이는 중앙시장 내 지신밟기가 바로 문화사업이며 대중사업이다. 1년에 한번쯤은 이 거리에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인과 지역영세상인 및 뜻있는 단체와 함께 공동해서로 '진주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한마당' 같은 행사도 계획해 볼 수 있다. 또한 1년에 4회 정도는 도깨비 시장과 같은 벼룩시장을 열수도 있겠다. 우리는 무질서한 노점상에서 지역 문화의 일주체인 노점상으로 그리고 장사하는 이곳을 황량한 거리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이 거리가 상설적인 문화의 거리로 자리잡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는 상가의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며 주민의 여가 생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저렴한 가격 그리고 상품의 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
노점상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값이 저렴하다는 사실이다. 불량품은 절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며 사행성 상품, 인체에 유해한 상품, 비위생적인 상품 등은 우리 스스로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인식은 지금 노점상인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또한 상품의 하자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변환의무는 생활하고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친절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자체 교육을 개발 할 것이다.

III 인권사각 지대에 놓인 노점

1. 노점상 단속에 따른 인권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점상 단속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가 꾸려져 노점상의 영업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이 없을뿐더러 단속의 대상과 방법도 제 각각이다. 단속반 역시 노점상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며 하나의 삶을 영위하는 직업으로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나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기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노점상을 단속과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계층으로서 이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단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점상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인간적 멸시는 늘 겪어야만 하는 일상이다. 단속반이 꾸려져 있지만 실제적인 노점단속을 담당하는 것은 20대의 공익요원들이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익히 알겠지만 대부분 노점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여성들의 경우 대

부분이 50대 이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시 새벽시장의 경우 인근 농촌에서 직접 일군 농수산물을 팔기 위해 함지박을 이고 나온 노점상들의 경우 그 연령이 80고령도 있다. 이들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억압적이고 명령투의 단속방식에 자식 같고 손자 같은 젊은 단속반에 이리저리 쫓겨야 하는 노점상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물론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수백명의 노점상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궁색한 변명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은 필요하다. 이들의 단속방식은 거의 반말조에 명령투이다. 조금 늦게 일어난다고 함지박을 툭툭 차기는 일수고 힘으로 꼬집어 내엎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루 생계가 달린 좌판과 리어카를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실어 가버리기도 한다.

몇 달 전에는 '노점상을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점심을 먹으며 자기 이야길 하는 것 같다'는 심증하나 만으로 달려들어 싸움을 일으키고 과일과 생물을 뒤엎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노점 단속의 인권 피해는 경제적 물리적인 피해보다 인간적 정신적 피해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 처음에 심한 모멸감과 열등감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단속 의경만 봐도 아무 잘못하지 않아도 피하게 되고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2. 노점상 강제철거에 따른 인권침해

유엔의 특별보고관(E/CN.4/Sub.2/1993/8, para 21)은 강제철거에 대해 "폭력적 철거와 강요된 이주는 심각한 국제적인 인권 의제로 부상했다. 강제철거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만큼 강제철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치러야 하는 불가피한 대가로 정당화된 채,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에 대한 불안과 공황상태를 더욱 가속화시키며 철거과정에서 심각한 폭력과 인권유린을 초래하게 만든다.

노점상 강제철거로 인한 파급효과는 삶의 의욕 상실과 더불어 앞으로 살아갈 생계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한 생존권 상실, 정신적 충격과 불안과 질병, 철거과정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 철거반대투쟁으로 인한 투옥과 처벌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철거와 철거싸움의 과정에서 모두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실례를 들면 99년 11월 진주시 중앙시장 내 구종로 거리에 장사하는 노점상 7인에게 행정대집행이 예고되고 이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긴장으로 신경쇠약까지 걸렸다고 했다.

"평생 동안 이 좌판하나에 의지해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이게 무슨 청전벽력 같은 소리냐 싶더라고.. 애들은 커가지 가진것

도 기술도 없지.. 딱 죽을 맛이었어. 신경이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한마디에도 날카로워지고 소화불량에다 밤에는 잠도 못 이뤘지..." -김모씨.

다행인지 최근 진주지역 노점상들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철거는 집행된바 없지만 전국적으로는 노점상 강제 철거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진주지역의 직접적 상황은 아니지만 노점상의 단속과 철거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됨으로 다른 지역에 자행되고 있는 노점상 폭력 강제철거에 따른 인권피해 사례를 되짚어 보고자한다.

다음은 2000년 12월 안양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나타났던 사례이다. 당시 안양지역 노점상 대표를 맡았던 김시왕씨의 글로서 대신한다.

「안양시에서는 2000년 6월 22일에 사유지에 보관해둔 안양 지역 노점상들의 손수레를 새벽 4시 정도에 강패들을 앞세워서 잠금 장치를 부셔버리고 손수레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날부터 안양에는 용역이라는 미명하에 각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는 강패들을 모아서 유평이라는 회사에 단속권을 주면서 인권이 말살 당하는 현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빨이 부러지고 손가락을 비틀어 인대가 끊어지는 잔인 무도한 행각이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자식뻘도 되지 않는 용역강패들의 천인공노할 일들이 아무렇지 않는 듯이 경찰들의 비호아래 무작위로 행해 졌습니다.

60대가 넘는 사람이 이제 23 살 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한테 얻어맞아서 눈위가 찢어져서 7마늘이나 꺾메는 일이 벌어지고 여자들은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나이 드신 여자 분들한테는 이루 말로다 표현할 수가 없는 성희롱적 언어폭력은 정말 낮뜨거워서 쳐다볼 수가 없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것이다.(이

xxx들이 오늘저녁에 다 와 내가 니네 남편들이 못해준 것을 내가 하루저녁에 다 해 줄게. 빨리 와 내 X맛을봐야 환장을 하지) 참으로 얼굴을 들고 쳐다보기 민망스러워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후회스럽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5지부의 김윤희 지부장님께서서는 10월에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증상을 입었는데 장사를 나오면 대로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바로 턱밑에 대고 이제 나이가 25살 밖에 안 되는 이런 용역강패 한 놈이 아주 친구 대하듯이 반말과 욕지거리로 하루를 보내는 현실 앞에 너무도 분개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13일에는 용역강패들이 단속을 나온 것처럼 위장을 하여 6지부장 김효수님을 6명이 끌고 가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집단폭력을 행사해서 지금도 다리를 절고 다니는 현실이고 우리 사무차장도 마찬가지로 집단폭행을 당해서 코뼈가 뼈틀어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단속을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냥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12월 22일날 서강집회가 있던 날 우리 5지부 회원들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강패들이 달려와서 50대 아주머니 2사람과 우리 회원들을 아주 무참하게 두들겨 패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안 구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집단구타를 하여 지금 갈비뼈가 굵이 가는 증상을 입었습니다.

5지부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분도 구청에서 두 사람에게 발로 차여 뒤로 넘어지면서 멀리에 엄청난 충격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머니는 발로 차버려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전체적으로 부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사회는 80% 대 20% 를 깨뜨리고 90% 대 10% 라는 현실로 다가와 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당해 왔으면 이제 그들이 내놓을 차례입니다.

왜? 우리의 도시시민들이 한줌도 되지않는 10%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다음은 얼마 전에 일어난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에 대한 인권피해 사례이다.

「대검과 가스총, 군화발에 짓밟힌 노점상」

8월 20일 해병전우회,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가 휴게소 노점상 단속에 투입되어 벌어진 상황입니다. 금강 휴게소에서 200여명의 전우회 소속 용역강패들의 노점상 단속 발대식을 가지고 봉고차량 64대, 고속버스 1대를 이용해 경부선에 위한 휴게소로 각개 분산하여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 20일 상황:

금강휴게소에서 해병대 전우회,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200여명이 발대식을 개최한 후 봉고 차량 64대, 고속버스 1대를 이용해 옥천휴게소 100명, 신갈휴게소 100명, 부산쪽 150명, 서울에서 하행 인원 150명, 총 500명에서 600명이 동원되어 20일 기점으로 노점단속을 강행하였다.

■ 20일 피해자 상황:

시흥휴게소 4명, 신탄 휴게소 3명, 죽암 휴게소 2명, 언양 휴

계소 2명이 지금 병원에 긴급히 후송되어 입원중에 있으며, 안성 휴계소의 경우 남성 회원 한명을 옷을 벗기고 전우회원 70, 80명이 에워싸 주위의 시선을 차단하고 집단 구타를 하였으며 지금도 그 회원을 억류중에 있으며, 그들의 악랄함은 전우회 소속 용역들이 이용하는 차량 안으로 노점상들을 끌어 들여 집단 구타를 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 21일 상황:

전우회 소속 용역들은 며칠전까지만 해도 대검과 가스총을 차고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살의를 드러내 보이며 그들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무기인양 자랑하고 다녔으며, 어제 오늘 대검은 차고 다니지 않았지만 가스총을 차고 다니면서 노점상 회원의 머리에 겨누면서 "네놈들 하나 죽여도 훈장 하나 반납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폭행뿐만 아니라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는 빌미로 휴계소 식당에 난입하여 무단으로 물품과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눈총을 줄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집단구타로 맞서고 있고, 담당 경찰서의 경우 한 휴계소당 2명이 배치되어 오히려 전우회 소속 용역들에게 구

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취재를 요청한 기자에게 기자증을 제시해도 폭언과 폭행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나가는 행인이나 레카차 운전사들도 무슨 일인지 물어 올 경우 집단 구타하여 진단서를 발부 받아 놓았다.

전체적으로 볼때 이번 고속도로 휴계소 노점상 단속에 투입된 용역들의 인원은 600여명으로 추정되며 공권력이라고 하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점상과 심지어는 휴계소 직원, 이용객들까지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가스총을 머리에 겨누고 죽이겠다는 등의 살인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대검을 착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풍기고 취재를 요청한 기자에게까지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단 이 두 곳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노점상들은 이런 강제철거에 따른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노점상의 형태나 상황 그리고 그 단속과 철거방법은 보통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어 진주지역도 이런 불안감에서 예외는 아니다.

노점상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강제철거로 받는 피해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보여지듯 폭력에 의한 부상자 속출, 여성들에 대한 직·간접적 성폭력 그리고 이렇게 각종 피해를 당하고도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고소하였을 경우 불법 노점 행위에 따른 벌금만 물고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

IV 노점상에 대한 인식전환과 제도적 보호

1. 단속과 철거 대상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점상

지금 현재 노점상들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심과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저소득 도시빈민이다. 스스로를 제일 하층 계급이라고 자위하던 노점상들은, 때론 개개인의 사장이란 호칭으로 스스로를 위안도 해보지만 그러나 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노점상의 위치는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 현실적으로 관련법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법화되고 이에 따라 진주시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노점상 관련 대책 수립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간의 실정이다.

노점상도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흔히 우리 사회의 노점을 100만 노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숫자나 규모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들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당한 대우와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노점상을 저소득 도시빈민의 실업대책과 자활적 생계수단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경제 활동 영역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노점상의 사회적 순기능을 강화하고 부정적요인(교통, 질서, 환경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적 요청이라 하겠다.

2. 노점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1) 노점상 특별법 제정

노점상은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규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위한 행위가 위법 행위로 규정지어져 전과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노점상을 옹호하는 법규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이 노점상을 단속하고 탄압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규 교유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이외는 별도로 노점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 중앙시장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점상을 유치하였다가 대책없이 단속을 하는 것이라든지 최근 변화된 유통구조 속에서 재래시장이 변모되고 있는 과정에서 노점상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노점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취해 져야 할 것이다.

2) 노점상 직능단체 구성

우리 사회 노점상은 100만이 훨씬 넘고 있다. 현재 가관점이나 구두박스 대표들은 각각 직능단체로 구성되어 그 직업이 공히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은 그수와 경제 활동상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본다면 반드시 직능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대표는 국정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 노점상의 이해와 이익을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V 맺음말

앞서 이야기 한 단속과 철거에 의한 인권피해 보다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노점상은 불법이라는 등식을 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노점상의 인권문

제는 늘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단속과 철거에 의한 인권피해 역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단속과 철거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 그리고 인간이하의 사회적 대우 인간적인 모멸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노점상이 하나의 직업과 계층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단속이나 철거에 의한 인권피해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노점상은 생계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직업으로서 인정받고 양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선차적인 해결 과제이다. 노점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는 90년대 초를 고비로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 사회 문제화 되었을 때만 일시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라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가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노점생존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이해에 따라(교통장애, 상가의 소득감소) 단속의 필요성 주장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점상에 대해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의 지향 속에 현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노점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이다.

바로 이런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을 바탕으로 노점상 인권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1년 전노련의 투쟁을 찾아서



도시민민활동가의

역할과 임무

도시빈민활동가의

역할과 임무

전노련 사무처장 _ 최인기

1. 우리는 어디 서 있는가 ?

"오전 10시 사무실 문을 밀치고 들어선다. 지난 밤새 또 누군가들 몰려와서 밤새 화투를 쳤나보다. 탁자에는 소주병과 담배꽂이가 수북하고 문가에는 자장면과 짬뽕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창문을 열어 제키고 환기를 시킨 다음 화장실에 걸어 놓은 대결레에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적시고 청소를 하기 시작한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출근을 하느라 식사도 거른 채 도착을 했더니 속이 출출하다. 서랍을 열어 먹다 남은 크래커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여유를 찾지만 그것도 잠시 곧 전화가 걸려 온다. 오늘은 구청 앞 항의 집회가 있는 날, 어제 맡긴 플랜 카드와 유인물을 확인하고 지역의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1시까지 모여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아침부터 겨울비가 부슬 부슬 내리기 시작하고 하늘은 축 내려 앉아

몸은 피곤하지만 오늘 또 하루의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며칠 전 과거에 함께 일하던 동지들을 만나 술좌석을 갖은 적이 있다. 대부분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왕성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는 별다른 활동 없이 일상에 파묻혀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아직도 전노련 실무자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모두들 대견스러워 한다. 자연스레 이런 모임이 열리면 운동에 대한 이러저러한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당당하게 내 자신의 주장을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과연 운동에 대한 결의만큼 전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실천을 하고 있는가?

어느 때는 하루종일 잡무에 시달려야 하며 때로는 간부들과의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아 업무가 몰리고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리기 일쑤이다. 회의자료 준비, 회계업무, 이러다 집회라도 열리면 식사도 거른 채 일을 하기 일쑤이며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모든 비난과 책임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오늘은 회계장부에 돈이 맞지 않아서 하루종일 계산기로 회비를 맞추고 있다. 과연 직업적 활동가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간부회의라도 열리면 회원들의 자발적인 주체적 참여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정한 안건들의 처리는 대부분 사무국장이나 차장의 몫으

로 떨어지기 일쑤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무차장은 의결권을 주지 않으며 준다고 하여도 네가 뭘 아느냐 하는 식이다.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면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이다. 과연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전에 일을 했던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전 노련 초창기에는 실무자들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다고 하던데 ..”

2. 활동가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과거 전노련을 거쳐간 수많은 실무자들 대부분은 전노련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실천을 하며 결합을 하였다. 일반 회원들은 그야말로 아들들과 딸 같은 이들의 헌신성에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줬을 것이다.

최근 활동가들의 상황을 살펴보자.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제대로 맡은 바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거나

1) 이 글은 도시빈민 활동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봄으로써 해서 향후 전망을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정리한 글이다. 이밖에 상반기 사무국차장 연석회의를 구성하기 전에 정리된 “도시빈민활동가들의 역할과 임무”와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제출된 “도시빈민들은 왜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요구하는가?”를 다시 구성하여 실었다. 마지막으로 전노련 소모임의 필요성까지 덧붙임으로써 구체적인 활동 계획까지 접근하려 했으나 그 부분은 향후 과제로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에서 개인 업무 처리를 하고, 일반 회원들과의 일상적 만남을 멀리하고 몇 달 일하다 그만두기는 일쑤이며 심지어는 지역에 불란을 일으키는 일 조차 비밀비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기에 일반 회원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속으로 얼마나 버틸 것인가 냉소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제 활동가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실무자들만 남아 있다. 즉 새로운 운동 방식의 전환을 통하여 현재 자신들이 처해진 상태를 한 단계 극복해야 될 지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 활동가들의 삶은 어떤가?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문성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또한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물론 운동의 전반적 침체로 인하여 이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인정 받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 또한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혼 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에 부딪치기도 한다.

사실 운동진영은 80년 광주항쟁을 기점으로 그 역사와 역량만큼 차츰 분화되고 있으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성장의 개념은 저절로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적으로 성장을 하는 만큼 질적으로 내용을 발전시켜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중조직의 경우 자신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치열한 대응 끝에 현재와 같은 조직적인 성과를 남겼으나 한편으로 변혁운동세력은 국가권력에 의해(국가보

안법)등으로 인하여 철저한 탄압을 받다보니 대중조직에 비해 불균 등 발전을 하고 대중조직의 일선의 실무자들이 변혁적인 상을 기치로 활동을 전개하기보다는 당장의 실리에 맞는 경제적 투쟁에 매몰되다보니 관료주의와 더불어 어용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듯 실용주의 노선과 개량주의 노선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가 잡히다 보니 변혁적인 활동가의 위치가 조직내 체계에 묻혀 제대로 발언을 확보하지 못하고 눌러있는 상태가 지금의 현실인지도 모른다.

이밖에도 재충전이라는 부분으로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변화해 가는 사회적 조건을 뒤쳐지다 보니 전문성과 함께 정보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재생산이 되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하곤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시빈민 활동가들의 장기적인 전망이 빈민운동으로부터 마련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선 활동가를 도식적인 나마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3. 활동가들은 누구인가?

첫째는 중앙이나 지역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부분 학생운동의 경력이나 단체활동을 통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전노련 활동을 벌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일

반 노점상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의식적인 측면을 앞세워 대중적인 정서를 간파해내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활동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들은 기획과 선전, 정책 등의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오기도 한다.

둘째는 노점상 출신으로써 활동가이다. 애초부터 노점상이었지만 이제는 노점상의 생존권 투쟁에 복무를 넘어서 대자적인 의식을 갖고 사회변혁을 위하여 실천을 전개하는 사람이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노점상의 정서와 함께 대중적인 활동을 벌여 나가지만 좀더 궁극적으로 노점상의 이해를 뛰어넘는 높은 수위로까지 의식적인 면을 끌어올리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은 대부분 경제적인 투쟁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

세번째로 타 단체 및 학생운동의 경험 및 노점상 출신은 아니지만 중앙 및 지역의 상근 실무자로서 차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하여 노점운동에 복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를 마지막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혼합한 것으로써 의식적인 측면과 생활적인 측면을 하나로 통일 시켜내는 경우라 하겠다. 이는 노점상 출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학습과 실천을 겸비함으로써 좀더 높은 부분까지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학생 및 단체 출신의 활동가이지만 생활적인 면까지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을 노

점을 통하여 해결 해가며 장기적인 전망을 마련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마지막 부류는 도시빈민 활동가들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나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다.

4. 도시빈민 활동가들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의 존재를 위하여 그리고 노점운동의 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 조건을 궁극적으로 아래로부터 즉 현장에서 부터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많은 부분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회원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활동가는 언젠가는 그만둘 사람으로 치부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전노련 출신의 활동가중 회원으로까지 장사를 하면서 정작을 하여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중앙과 지역의 실무자로 약 2-3년이 경과를 하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모든 활동가들이 빈민 운동 만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생활적인 영역까지 자신의 존재 조건을 만들어 나가며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생활적인 조건까지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노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장사를 하면서 회원들과 동거동락을 하고 그 속에서 장

기적인 운동적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조건을 풍부히 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또 한편 자기도 모르게 실무라는 부분으로 한정되는 역할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 할 것이고, 노점상으로서 빈민운동을 펼쳐나가는 데 중장기적인 자기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많은 결의를 필요로 요구되어지며 자신의 삶을 빈민운동에 실질적으로 헌신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둘째, 도시빈민운동을 제대로 전개하기 위한 활동 형식이다.

비록 전노련은 노점상들의 이해와 경제적 이익에 기반 한 회원자치단체로서 조합과 같은 성격을 일차적으로 갖지만 단속에 따른 투쟁만 실천하는 단체로 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로는 당면 현실에 맞는 정치적, 변혁적 요구를 전면내 내걸고 자본가 정권에 맞서 즉각적인 투쟁을 벌려 나가야 될 것이다.

지난 시기 전노련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발맞춰 숨 가쁜 투쟁을 전개해 오긴 하였으나 이를 한차례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은 수위의 변혁적이고 전투적인 대중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뛰어 넘도록 중앙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매진 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틀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현안을 둘러싸고 건강하고 밝은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들의 획적인

연락과 네트워크가 반드시 요구가 되며 궁극적으로 활동가들의 현장모임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활동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은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자료정리가 요구되어진다.

우선 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환경과 조건이 존재한다.

노동운동으로 치면 산업별, 업종별 특수성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각각의 환경에 맞는 특성이 존재하고 각각의 사업장별로 대두되는 쟁점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장 안에서 라인별로 형성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존재 할 것이다.

노점상의 경우 지역별 특성, 예를 들어서 지방조직과 서울조직 신규조직과 기존의 조직 그리고 품목별로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있는 각각의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별로 노점단속의 집중적인 대상 지역과 상대적으로 안착화 되어져 있는 지역 등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현재 전노련은 전국적으로 30개가 넘는 지역연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나 중앙의 한정된 역량으로 이를 모두다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대응은 단속에 준한 즉자적인 대응의 수준을 넘어 투쟁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단계까지 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요구되어지는 이유는 추상적인 수준의 활동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

적인 현실에 맞는 자료를 토대로 운동을 전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의 오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간부들은 이를 반드시 문서화하지 않아도 경험과 직관으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실태 자료의 형식으로 지역적 전망을 자료화 시켜서 역량이 축적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만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지는 조직운동을 넘어서 실사구시가 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넷째는 개개인의 일상적 사업의 점검과 검토

하루 및 주간의 일정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

지역의 활동가의 경우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가는 우선 몇 마디의 대화와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알 수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고와 함께 고민의 지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이 정례화 되어 있는가? 전노련의 지역과 중앙은 일반 직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 직장과는 달리 전노련의 활동이 때로는 대단히 바쁜 측면도 있지만 한편 누군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부분 또한 존재한다고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전화 받고 남은 시간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역의 실무를 한번 살펴보면 매주 월요일은 지역을 반드시 순회 방문을 한다든가, 화요일은 정기적인 지역간부들을 상대로 컴퓨터 강의를 실시하거나 수요일은 회의 자료 준비 등등 하루 및 주간의 사업을 내실 있게 계획을 잡아내고 지역장 및 간부들의 일정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타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다양하게 사업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성격에 맞는 사업의 리듬과 패턴 그리고 스타일을 개발 시켜나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다섯째 학습하는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

가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과거의 활동선배들에 대해 무한한 존경심을 갖는다. 어려운 시기 지금과 같이 컴퓨터조차 보급이 안되던 시절, 새벽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등사기를 직접 밀어서 거리로 뿌리고 다녔던 선전물들은 지금과 같이 멋지게 편집되어 만들어진 홍보물보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조악하고 형편이 없지만 혼과 생명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활동비도 변변히 받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도 왕성한 활동과 함께 틈틈이 학습을 통하여 역사에 남을 만한 빛나는 도시빈민 자료들을 정리해 나갔다. 10년이 지난 자료들이지만 현재의 도시빈민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도 훌륭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과거의 도시빈민의 활동가들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운동의 조건과 환경이 많이 향상 되었지만 과거에 비해 실무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조직내 학습을 하는 기풍은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아니 학습의 필요성이 더 이상 대두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전노련의 혼란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평소에 활동가들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였다면 지난 시기 우리의 혼란을 최소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

당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소수의 활동가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졌다. 이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한 시기에 침묵을 해버리는 기회주의적이거나 무사안일한 모습으로 또는 심지어 잘못된 흐름에 편승하여 오히려 휩쓸리게 된 측면도 있다.

물론 지역과 중앙이 건강히 설 수 있도록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서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와 처지를 뛰어 넘어서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과 중앙에서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결단력 있게 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회원들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일상적인 모습에서 올바른 끝어낼 때만이 궁극적으로 변혁적인 입장까지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이다.

최근의 도시빈민 활동가들이 이론적 기반이 매우 취약함은 위와 같은 현상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론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정책적 판단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 속에서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는가?

현재 전노련은 안팎으로 과도기에 놓여있다. 지난 시기 몇몇 사람들의 소영웅주의적이고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던 우리는 새로운 지도 구심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탄압의 방법이 다양하듯이 우리의 대응방법 또한 다양화되어 질 것을 안팎으로 요구받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속에서 조건이 변모해 오고 있으나 회원들의 투쟁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망을 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생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시빈민 활동가들의 중요한 역할과 임무는 이처럼 일반회원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목적 의식적인 노력이 되어야 하며 지역의 간부들이 올바른 입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백만 노점상에 또 한 명의 노점상이 보태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또한 단순히 머리만 움직이는 활동가가 아닌 의식과 실천이 겸비되어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하기에 학습을 통한 이론의 정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자기 인생의 가나긴 여정의 징검다리를 놓으며 하나 들씩 한계를

극복해 가는 것이 도시빈민활동가의 기본적인 임무와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부단한 학습과 조직적인 실천을 통하여 내공을 쌓아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섯째 회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운동이 대중성을 획득 하는 것만큼이나 개별 활동가와 회원들과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몇 차례 언급했듯이 우리의 활동의 폭을 사무실 내의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사무를 보는 정도로 축소하여 회원들에게 우리 곁을 스쳐 가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 정도로 치부 되는 등 현재의 불신을 초래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평소 자신과 가깝게 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 할 수 밖에 없다. 평소 얼굴 한 번 제대로 비추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올바른 관점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과거 노동운동을 하던 시기 함께 현장에서 만났던 한 학생운동가는 노동자들의 품성을 공장에 들어와서 겪어보니 하늘과 땅 차이를 느꼈다고 한다. 이는 노점상에 결합을 하여 함께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간혹 느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점상은 어쩔 수 없어..."

혹은 "자신의 이해만 쫓는 사람들..." 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남기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말도 되지 않는 명분을 만들고 떠나는 측

면도 있다. 우리는 민중적 품성이라는 것을 개별 노동자나 개별 노점상의 모습 속에서 발견을 해서는 안 된다. 개별화된 노동자 중에는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사대나 어용노조의 간부의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 간혹 도시빈민의 활동 속에서는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노점상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을 한다. 다시말해서 역사적인 계급성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잘못된 노동자나 노점상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투쟁과 공동의 실천의 과정 속에서 조직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단련이 되어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들은 회원들과 만남 속에서 조직의 돌아가는 현황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집회가 있을 시 이번 집회의 성격 등을 공유하며 언제나 회원들을 만날 때는 선전물, 가로수, 지역 신문 등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회원과 활동가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실무적이며 사무적인 만남을 넘어서 회원들의 정서와 상태를 항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회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가란 단순히 며칠에 한번씩 지역을 순회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 가슴속으로 대중을 대하는 자세 즉 회원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삶의 애환을 느끼고 배운다는 자세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추상적인 계급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과 투쟁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와 펄펄 뛰는 민중들의 혼을 발견해야 한다.

일곱째 미래를 마주보며 실천을 해 가는 활동가

한편 지식인 출신의 활동가와 현장 출신의 활동가에 대해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자. 알다시피 노동자는 제 몸뚱이밖에 내다 팔 것이 없다. 그래서 노동을 한다. 노점상은 자신이 리어카를 끌고 거리에 나와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면 제한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돈을 벌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은 일단은 그보다 형편이 낫다. 노동자와 같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자신의 지식을 팔 수 있는 밑천이 있다.

돌아갈 집을 놔두고 떠나는 나그네와 집도 절도 없이 길 떠나는 나그네의 처지는 분명히 다르다. 전자는 이도 저도 아니면 몸 비빌 곳인 자기 집을 언젠가 찾아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집도 절도 없이 길 떠난 나그네는 길바닥이 곧 집이요 죽으면 그곳이 무덤인 것이다.

지식인 출신의 활동가와 노점상 출신의 활동가가 행복한 집을 뛰쳐나와 고행 길을 견뎌라도 언제든지 다시 그 행복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에서 지식인 출신의 활동가는 자유롭다. 그래서 지식인은 원하는 세상이 오지 않거나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기에 돌아갈 자리를 본다. 자기 인생에 포기할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괴롭고 빈민이 많다.

그러나 정말로 맨주먹인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그마한 희망이 보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전개한다.

때문에 맑스는 노동자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말은 유효하다고 본다.

물론 필자의 주변에는 소위 학생 출신의 활동가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현장에 투신을 하여 훌륭히 맡은 바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의 모습속에서 노동자 출신인 가 아니면 학생 출신인가에 대한 구분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위에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주장했던 미래를 마주보며 실천을 해 가는 활동가로써의 만남이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활동가라는 공통의 분모가 없었다면 그들과 나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의 지식인적 속성이나 아니면 학력이 갖는 기득권이라는 간극을 매우지 못하고 평행선을 걸었을 것이다. 현장에 복무하는 지식인 출신의 활동가와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 고개 들고 저항하며 투쟁을 전개하는 현장 출신의 활동가의 행복한 만남을 꿈꿔야 한다.

5. 잘못된 활동가들의 유형은 무엇인가?

다음은 실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잘못된 유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잘못된 이론가형이다

우리 운동에 있어서 이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제대로 된 이론 없이 실천을 하는 것은 정말로 맹목적인 것이며 방향 없는 배와 같이 풍랑에 휩쓸리기 쉽다. 그만큼 이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론을 절대시하거나 모든 운동을 이론으로 돌리는 태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흔히들 종종 주변의 활동가들에게 듣는 이야기 가운데 전노련에 정책이 있느냐 있으면 어디 말해 보라는 의견을 듣는다. 사실 도시빈민과 관련된 정책 자료 중 일부는 무슨 무슨 대학원 논문이거나 연구소 등에서 정리되어 발표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시빈민 운동을 넘어서 과거 우리 운동에 혁명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다양한 정책과 논문을 발표한 사람 가운데 끝까지 기층민중과 함께 투쟁을 전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게 중에는 가장 보수적인 인사로 변해 있거나 시간이 흐른 후 보수정치권에 투항을 하여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변절된 사람들을 간혹 발견한다.

이론가에게 생명은 공식과 체계이다. 상황이 주어지면 공식과 체계에 따라 문제를 풀고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라 결론과 행동이 나온다. 만약에 그 공식과 체계를 가지고 현실을 해석해 내지 못하고 풀 수 없다면 기존의 공식과 체계를 버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편 논증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간다면 그

것은 오만과 독선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식을 찾아서 기존의 것을 버리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청산주의이며 혹은 잘 풀어서 성공을 하면 극적인 반전이 된다.

이론가가 자신의 이론에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해나가는 것은 어느 경우든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이론가는 대부분 자신이 던진 이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책임과 실천의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대중이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층인 것이다. 이론가는 오직 자신이 갖고 있는 공식과 체계가 현실에 맞아떨어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면 그만이다.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이론과 잣대를 가지고 수정을 하면 그만이다. 때문에 정세가 역전이 되면 제일 먼저 짐을 챙기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론을 앞세워 현실을 분석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다가 만약 실패를 하면 더 이상 자신의 존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분파적이고 조직의 분열을 앞서서 끌고 나간다. 그만큼 이론은 자기 완결적이고 배타적이며 자신을 낫출 줄 모르는 데서 출발한다.

맑스는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맞는 말이다. 이론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문제를 떠나서 현실을 이끌고 방향을 선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이론은 현장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과 투쟁 속에서 나오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론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혁명적인 이

론만이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의 이론에 대한 책임있는 실천 보다도 이론에 영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에 지적을 하는 바이다.

들째 운동이 우선인가 아니면 처세가 우선인가

다음은 활동가중 정치꾼과 같이 처세부터 하며 자신의 입지를 우선 다지는 사람으로 전략되는 모습이다. 이들은 언제나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면 그에 따른 이해 득실을 따지고 처신할 카드가 무엇인지 고른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며 무수한 넘나들이를 거듭한다. 정말로 눈부신 처세술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욕을 먹지 않는다. 때문에 평소에는 성격이 관찮은 사람이거나 적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이들도 어려움에 처해지는 때가 있다. 정말로 어떤 냉철한 문제에 처해서 결정적인 판단을 요구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표리부동해 지거나 회색분자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런 자는 아직 고수라고 볼 수 없다. 정말 고수는 눈치와 줄타기를 거듭하다가 대세가 기울여 졌다 싶으면 잭싸게 그쪽에 붙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충성을 한다.

물론 목소리도 한껏 커지고 상대방에 맞서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본질을 문제 삼지 않는다. 대상과 무수한 관계가 있고 술한 사연이 있건만 오직 계산의 부단한 연속이

있으며 이해 특질의 결산만을 분명히 하면 된다.

이것은 처세라는 순간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직관과 감각이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소위 활동가라는 탈을 쓴 자들에게도 종종 이러한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가슴아픈 현실이 분명 아닐 수 없다.

첫째 맹목적인 활동가는 없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친화력을 주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대상이 무엇이든 조직을 하고 보자는 데 달려 있다. 이는 정치꾼과 일단은 다른 점이 당장의 이해 특질을 따지지 않는 데 있으며 대단히 현신적인 모습을 일단은 보여준다. 이들은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친화력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우선 털어놓는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개인사에 대해서 늘어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본다. 만약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면 일단은 한발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관조하기도 한다. 이렇듯 상대방과의 정서적 일체감의 확보에 주력하고 일단 이를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정치적인 방향과 입장을 주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라이벌쯤 되는 사람이나 조직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각인 시킨다. 정보에 있어서도 제약을 하고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편파 시킨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의식이나 판단에 있어서 다양성이란 애초부터 이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확보된 정서적인 일체감이 그룹을 이루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미 각인이 된 다음에는 사실상 치유하

기는 불가능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친분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투쟁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에 잘못된 판단은 물론 아무런 고민과 비판 없이 물려가기 때문에 이들은 외부에서 비취지는 부분도 끼리끼리 문화로 비취지기 십상이다.

친화라는 것이 정서나 감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깊어져서 때때로 처음의 동기가 사라지고 애초의 목적도 사라지며 도대체 왜 그토록 조직을 하는데 열을 다했는지 의식을 못하게 된다. 노동 현장에서 겪은 사실인데 소위 활동가의 주변에 우수 물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을 의식적으로 단련을 시키거나 활동가로 성장을 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중 속에 묻혀서 함께 한다는 사실에 만족을 하며 그들의 위에서 고마운 언니, 오빠로 혹은 형으로 누나로 남기만을 바라는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또한 가끔 목격하는 현실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소 과도한 표현이지만 지적을 하자면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이거나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면은 없지 않은지 더욱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 하며 대단히 수동적이고 앉아서 답을 기다리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지도력을 내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일이다.

한편 위의 잘못된 활동가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때로는 다양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이론가는 분별이 있는 반면 용기와 겸허가 부족 할 수 있으

며 모사적인 사람은 실속은 있으되 믿음과 원칙이 없고 맹목적인 활동가는 또는 의리로 뭉친 사람은 친화력과 대중성이 있는 반면 폐쇄적이고 전망이 없을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가장 경계할 사항은 이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깎아 내리거나 혹은 열심히 현장에서 회원들을 조직하는 사람을 맹목적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거나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정치 협잡꾼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위와 같은 유형은 극단적인 형태를 놓고 상상을 가미해서 정리를 한 것이지만 어느 사회든지 한 개인이 모든 방면에서 출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닦아 내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상호 역할과 기능적 분담을 통하여 극복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체계 안에서 각각의 역할이 정해지고 그 속에서 점점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 이러한 점점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절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의 현실은 당장의 중장기 적인 이론과 전망보다도 눈에 보이는 단속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가 요구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직의 체계 속에서 점점이 되어지고 역할 분담이 될 때만이 자신도 모르는 위와 같은 편향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자!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 조직 내적인 문제에 고민이 항시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자발성을 통해 문제를 공통의 과제

로써 조직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답답함을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 의식이 없으면 눈앞에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오르내리는 자기 집의 계단 수를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전노련을 뛰어넘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집단적인 고민을 이제는 함께 전개해야 한다. 그동안 통일시켜내고 모아 내지 못한 과제를 향후 도시 빈민 운동을 전개하는 후배 활동가들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란 결국 전노련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문제이며 중장기적인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 도시빈민 활동가들의 안정적 재생산과 교육 그리고 한편으로 개개인의 실천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발성이 병행 될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 될 것이다.

6. 경세전망과 투쟁 방향

일제시대이후 근대적 공업경제가 들어서면서 비롯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역사에 비해 빈민운동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도시빈민의 역사를 본격적인 활동 시기인 70년대 경기도 광주 대단지 투쟁과 청계천 등지에서 벌어졌던 철거반대 투쟁 등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다른 부문운동에 비하여 그 역사

는 대단히 짧다.

그러나 80년대 철거투쟁의 본격적인 대두와 함께 비슷한 시기 '전국노점상연합'을 건설하였으며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점상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14년 동안 헌신적으로 지역과 중앙에서 일을 해오던 수많은 실무자 아니 활동가들의 보이지 않는 고군분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빈민운동 활동가들에게는 전망과 관련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때문에 안정적인 활동가들의 재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조직의 현실이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으로 부터 출발하는가. 이는 90년대 들어서면서 정세적 측면에서 민간정권의 등장에 따른 전체 운동전선의 약화된 부분을 짚어야 할 것이며 빈민운동, 구체적으로 철거의 경우 과거 독재정권에 맞선 대대적인 철거투쟁이 90년대 들어서 순환식 계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게 둔화를 하였으며 노점상의 경우 IMF 구제금융 등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숫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내적인 문제등으로 지도 집행력이 관철되지 않고 분열적인 움직임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도시빈민 활동가들은 과거 전체를 움직여 나갔던 활동력을 새롭게 복구를 해야 한다. 다음은 2001년 정세를 중심으로 우리의 투쟁

슬로건과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흔히 정세는 계급간 힘의 역관계를 중심으로 투쟁이 어떤 쟁점을 통해 주어지고 무엇을 매개로 주도적인 계급의 계획이 관철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내오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 덧붙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호 내적인 연관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어떻게 계급투쟁에 결과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당면시기의 슬로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풍부한 근거를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에 전부 답을 내릴 순 없다. 다만 도시빈민 활동가의 입장에서 노점상, 철거민의 생존권 투쟁과 이를 통해 제기되는 행정권에 대한 입장과 방향에 대한 선형적인 의미 정도를 짚어 보고자 한다.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는 정세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한다. 즉, 현 시기 경제적 모순의 증대와 심화 정도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내부의 갈등과 위기정도 이밖에 계급투쟁의 특수성 속에서 전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추이와 더불어 제국주의국가와 신 식민지국가와의 역관계 그리고 민중들의 생활상의 고통 정도를 통하여 정세 분석을 도출해내고 이에 따른 투쟁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위의 지표를 들이댄다고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전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각의 단체들은 자신의 역사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위의 지표들 속에서도 상이한 판단들을 내놓는다.

올 상반기에 민중연대(준)를 중심으로 김대중정권 퇴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조직들이 모여 토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각 단체의 입장은 다양한 정세관을 드러내놓고 있다. 특히 정세분석의 관건이 참석한 사람들의 단상 즉 민중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주체역량의 유무 그리고 우리의 준비 정도 및 투쟁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된 듯하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중간층의 견인을 위해서 퇴진투쟁을 제출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보다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세계지배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대투쟁과 더불어 수구세력을 고립시키는 전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제출이 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김대중정권에 대하여 반대의 흐름은 형성이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퇴진으로까지는 의식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동 이상의 일상적인 행동 투쟁의 목표로 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현정권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활용론을 들 수 있는데 정부를 압박하고 비판을 가해야 하지만 제휴나 연대의 대상으로까지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억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호는 무엇인가?

정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노동자 민중의 고통의 심화 정도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 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전체 노동인구의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만성적 고용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 역시 천문학적인 농가부채 문제와 더불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등의 투쟁을 벌이고 있고 도시빈민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철거 현장은 물론 길거리에서 조차 밀려 나가고 있다. 우리사회의 의료보험은 파탄난 지 오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오히려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그뿐인가? 김대중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실시 1년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4백30억이나 예산안을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그뿐인가 세계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이 정부의 체제 아래에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집시법은 새롭게 개악을 시도하고 있거나 이미 집회결사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김대중 정권하에서의 비리사건은 가깝게는 이용호금융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올 상반기 인천 부평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그리고 울산의 효성

중공업등의 폭력적인 테러 진압은 자본과 정권의 위기를 일정정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다양한 각계 계층의 투쟁의 요구가 이미 200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 모든 투쟁의 원인은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생존권 투쟁과 이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김대중정권 퇴진을 환기시키고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철폐 및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늘어나는 실업자들에 의해 파생되는 도시빈민의 근본적 고통 역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나 지금 시기 위와 같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 속에서 형성된 분노와 힘의 관계, 그리고 그 내적인 추이를 구체적인 투쟁으로 제출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시기별로 투쟁을 전개하거나 다양한 쟁점을 배치함으로써 갖가지 대중투쟁의 핵심고리를 마련해 내지 못하고 백화점식(투쟁의 중심과 핵심을 간과하고)으로 나열하여 투쟁의 조직적, 내용적 실체와 중심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계급 문제와 민족문제를 서로 결합하여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들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부차적인 영역으로 상징을 하거나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계급 계층의 이해에 준하다보니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과 이의 구체적인 표현인 김대중정권 퇴진이라는 당면 요구를 갖은 논리로 희석화 시킨다는 것이다.

7. 현 경세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현재 우리 운동진영은 정권에 대한 슬로건을 둘러싸고 반대와 퇴진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이 된 측면이 있다. 표현의 문제만 살펴보면 반대는 단순히 현정부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 표현의 정도이고, 퇴진은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며, 타도는 우리의 주체역량을 가지고 정권을 교체한다는 의미 일 것이다. 덧붙인다면 타도는 좀더 우리의 주체 역량을 통하여 노동자 민중의 수권정권 까지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정권에 대한 슬로건은 사전적인 표현을 넘어서 운동을 풀어 가는 각각의 조직들의 정치 사상적인 입장의 차이가 묻어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투쟁이 올바른 전술에 의거할 때만 극대화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운동에 있어서 매시기 국면마다 각 단체들간의 전술 방침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남한 경제의 축적과 모순의 정도, 자본가 계급내부의 갈등과 위기 정도 그리고 민중들의 생활상의 고통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빈민운동 역시 운동의 역사에서 정권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점상의 경우 과거 1995년 최정환 열사 장례식과 투쟁을 둘러싸고 당시의 김영삼 정권에 대한 태도와 슬로

건을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과 똑같은 논쟁이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의 논쟁 역시 “아직은 대중들의 정서에 비추어 시기 상조 이거나 또는 우리의 주체역량이 미흡함을 들어서 김영삼정권 퇴진을 거는 부분은 반대다” 라며 일부 단체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에 와서도 각각의 단체들이 모여 비대위나 대책위를 구성하여 똑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우리주위를 둘러싼 계급의식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자본가 계급과, 중소자본가계급, 소자산가계급, 노동자계급으로 나뉘어 진다고 했을 때 그들의 정치적인 태도는 그들이 처해진 경제적인 존재 양식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김대중 정권 퇴진은 가장 억압받는 노동자 계급(도시빈민은 포괄적 노동자계급이다) 의 목소리를 대변해 내는 것이다.

물론, 독점자본가계급이라 하더라도 현정부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갖더라도 보편적인 계급의식이 경제적 토대에 입각했을 때 우리사회에 변혁의 잠재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과 조직된 대중의 역량을 어떻게 보존 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나 중간계급 이상을 상대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계급의식과 이의 조직화를 전제로 했을 시 민주노총과 전빈련 등의 대중조직이 조합원 및 회원들의 주장을 대개로 한 현정부에 대한 퇴진 투쟁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째, 대중의 의식과 주체역량이 미흡하기에 퇴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주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반전의 계기로 다시 삼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역량이 미흡하고 전 민중적인 요구 사안으로 확산 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더욱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출을 하여 대안으로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주체역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물결이 되살아나도 이와는 무관하게 주체역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상적 수준의 요구에 머물러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 운동을 뿌리깊게 가로막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듯 주체 역량과 대중들의 준비정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중 추수적 이거나 준비론적인 편향에 사로잡혀 운동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역량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지금시기 조직 대중들의 요구 사항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를 통하여 대중들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직된 역량을 강화하고 전 계급적 투쟁으로 진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정부는 직접적인 타격의 대상이 아니라 제후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견해라 하겠다.

제후와 협력의 이전에는 민중운동진영의 성과로 견인시킬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역사적인 실전을 통해서도 확인 되는 바이다.

과거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위하여 제도정치권에 뛰어 들면서 지금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주체역량이 부재하기에 현정권과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렇듯 역사 속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보수정치권과의 연대를 위해서는 그들을 견인하고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쟁이 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도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에 대한 구호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구호의 수준을 넘어서 대중이 스스로 정치적인 경험과 이를 통한 자각으로 나가며 노동자 민중이 계급의식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위치를 지어야 마땅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진적인 조직과의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도출해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써 전술을 마련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시빈민 활동가들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운동적 실천을 내오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우리 사회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민족의 문제로써 현 정부에 대한 퇴진 투쟁보다. 당면 투쟁은 미국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지배전략에 대한 반대투쟁과 더불어 현정권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수구세력을 고립시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번 국제적인 초미의 관심사인 테러의 경우부터 언급을 하자면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은 3세계 나라들에 대한 패권주의와 경제적인 침탈이 그 배경과 원인이다. 우리 나라 만해도 미국은 부당한 내정간섭과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한 전쟁위기감을 조성하고 최근에는 무기장매를 통해 한반도의 분단고착화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렇듯 미국 식 세계화를 각국에 강요해오면서 미국은 언제나 제 3세계를 비롯한 각국의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새로운 죽음의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의 전쟁에 대한 지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자본가 지배계급은 전쟁의 위기감을 기회로 삼아 민족 민중운동진영에 탄압의 도구로 삼거나 경기침체에 더하여 저항하는 민중을 압박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듯 주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신 냉전 나아가 국제적인 긴장관계의 흐름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우리의 투쟁과 방향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민족자주 및 반제국주의의 문제는 민중생존권 투쟁을 넘어서

더욱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지만 지금으로써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그러기에 지금시기 반제 구호가 일반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와 협력을 얻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민중생존권 문제 더 나아가 미국에 의해 남한 내에서 저질러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권퇴진 투쟁과 상호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을 때만이 한 걸음 민중생존권 투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제국주의 문제에 대한 한걸음 진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 시기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미의 공고한 동맹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부시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국제 정세는 MD체제를 구축하며 전쟁에 편승하여 새로운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듯이 남한 내에서도 부시정권의 대북 관계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현정부 역시 보수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현 시기 노동자, 민중의 고통에 있어서 핵심고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집행자로서 김대중정권의 퇴진 투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이 자칫 잘못하면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보수야당에 득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순박한 지적에 대해서는 썩은 보수정치권 모두에 대한 타격과 투쟁을 더불어 조직해야 할 것이다.

8. 지금 시기 가장 핵심적 투쟁은?

이미 올 상반기 도시빈민들의 집회에서는 김대중정권 퇴진 이상의 목소리가 흘러 넘치고 있다. 철거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퇴진을 넘어서 오래 전부터 정권 타도투쟁을 가두에서 외치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 사회에 철거민이 처해있는 주거권을 박탈당한 절박하고 특수한 조건에서 기인을 한다고 하겠으나, 지난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적인 만행을 목도하면서 전국민은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 노점상, 철거민들에게 폭력이란 이미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잠조차 잘 곳 없이 주거권을 빼앗기는 심정, 길거리의 밥그릇 조차 견어차이는 절박한 심정이 퇴진을 넘어 타도 투쟁으로 까지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은 언론은 물론 민중운동진영에서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그야말로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렇듯 도시빈민 투쟁은 정부를 상대로 특별한 정책과 대안 없이 그저 투쟁으로 돌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매시기 정권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2001년! 자유민주주의,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벨 평화상, 인권과

통일 대통령...

그러나 그 뒤에는 피로 흥건히 젖어 있는 자본의 위기가, 정권의 음모가 숨어 있다. 상반기 대우자동차, 효성중공업,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만행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비로소 도시빈민에게 자행되던 은폐된 폭력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노점상들을 상대로 단속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역비용은 이미 수십억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전국적으로 2천개를 넘어선 용역회사는 뒷골목 폭력배들의 공공연한 합법적 자금줄이 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다쳐 쓰러지는 노점상은 이미 수백명을 넘어서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계급적 한계를, 아니 파시즘적인 모습을, 폭력을 통해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용역깡패에 의한 폭력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자. 지난 8월 20일 대전 근방의 금강 휴게소에는 약 400여명의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해병대 전우회 소속의 용역깡패들이 단속 발대식을 가졌다. 그리고 봉고차량 64대, 고속버스 1대를 이용해 전국각지의 휴게소로 발빠르게 흩어졌다. 노점상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봉고차를 이용해 옥천 휴게소 100명, 신갈휴게소 100명, 부산쪽 150명, 서울에서 하행 인원 150명, 총 500명에서 600명이 동원되어 기습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강행하였다. 이들의 손에는 대검을 비롯하여 가스총 심지어는 쇠 지팡이 등의 무기가 들려져 있었다.

그날 저들의 단속으로 휴게소에는 노점상이 단둘 혹은 많아야 서

너 명인 노점상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해야만 했다. 이날의 충돌로 시흥휴게소 4명, 신탄 휴게소 3명, 죽암 휴게소 2명, 언양 휴게소 2명이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긴급히 후송되었다.

아무리 불법적으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 깡패를 투입시켜 무자비한 폭력단속을 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턱없이 모자란 저소득 도시빈민의 복지기금 그리고 이미 바닥난 공공근로 사업에 비취 봤을 때 국민들이 납부하는 혈세를 용역깡패를 고용하는 데 낭비하거나 쓰여져서는 안된다.

또한 최근 '해병전우회' 나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등과 같은 단체를 통하여(현행법상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노점상 단속 용역을 주는 등 이들 단체와 노점상과의 대립적 관계로 몰고 가는 것 또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노점상 문제에 있어서 현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2001년 월드컵 계엄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노점상이 거리질서와 미관을 해치고,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는 군사독재 시절의 사고방식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한계,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경제정책부재와 제한된 사회복지예산, 관계공무원의 경직된 사고방식 등 모든 것이 저소득 도시빈민과 노점상의 생존권을 결국 버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우리의 대안은 단순하지만 분명하다. 착취와 억압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것은 뜨거운 열기와 살을 에는 추위를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으로 버텨내고 단속에 맞서 싸우는 치열한 삶에 현장에서 우러나는 교훈이다.

투쟁이야말로 정권의 부도덕한 탄압에 맞서서 우리의 밥그릇을 지켜내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인 것이다. 안 그런가?

9. 투쟁슬로건을 둘러싼 몇가지 점검

이미 김대중정권의 지지율은 바닥을 친지 오래다. 또한 정권의 허반기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보수적으로 선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점상, 철거민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김대중정권 퇴진의 구호 속에 무슨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으리라는 이들의 딱딱한 삶 속에는 이미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과 더불어 삶의 고통이 경험적으로 촘촘히 배어 외쳐지는 구호라 의심치 않는다. 활동가들은 현상을 넘어서 대안적 수준으로까지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에 기초하여 작업장에서 노동을 통제 지배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본은 이제 일상적인 영역으로 그 착취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상품가치가 눈에 띄는 곳에서는 자본이 전일적인 지배를 형성하고 있다.

제대로된투쟁

승리하는

집회를

만들자

사무처장 _ 최인기



들어가며

머리를

우리는 수많은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우리에게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자신들의 탄압을 은폐하기 위하여 용역강패를 고용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 축으로 노점상에 대한 일시적 완화정책을 쓰고 있다. 제한적인 등록제나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초기 노점상 단속의 완화 또는 대출의 허용까지 제시하는 등 대국민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일시적인 언론플레이에서 한 걸음 그들 나름의 진전된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실업과 고용문제의 해결이라는 근본적인 대안 없이 일시적인 허가제나 등록제는 또 다른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편으로 진행이 될 여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도시빈민 조직의 분열과 와해의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측면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쟁을 전개 할 것인가?

진행된 전노련의 투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 노점상들이 매일 싸우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을 받고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 척박하고 암울한 세상에 노점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결과라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 수많은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달려왔기에 정권은 과거와 같이 노점상에 대하여 일방적인 단속으로 일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전노련은 열심히 집회를 하였지만 성과가 없다는 음해성 소문을 간혹 접할 수 있다. 아마도 성공 사례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일시적인 교섭으로 노점상 문제가 해결 되는 듯이 보이지만 결코 교섭으로는 의식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득이 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단 한번의 투쟁으로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가? 없다! 모든 지역은 스스로의 생존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로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생존권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승리도 또한 패배도 없는 것이다. 하루하루 숨쉬듯이 투쟁의 긴장과 연속만이 있는 것이다. 그게 남한 사회의 노점상의 현주소이다.

우리 조직은 투쟁을 통해서 건설이 되었고 지금도 투쟁은 우리 조직을 살아 숨쉬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전노련은 친목회나 상우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단속에 맞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는 투쟁조직인 것이다.

타협을 통해서도 결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역사를 우리는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지 않았는가? 누구는 투쟁의 숫자가 주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럼 투쟁을 어떻게 질적으로 높여 낼 것인가?

투쟁이란 무엇인가?

투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집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집회는 장소에 따라 옥내 집회, 옥외 집회로 크게 나누며 그 방식으로 결의대회, 전진대회, 규탄대회, 촉구대회, 출범식, 출정식 등을 들 수 있다. 집회는 이렇듯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총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투쟁의 방법 가운데 집회는 하나의 요소라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투쟁의 범위가 이렇게 다양하다면 사전에 선전, 홍보전을 준비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항의 방문을 가고 이 모든 것이 투쟁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다양한 투쟁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 우리는 회의 장소에서 집회와 투쟁에 대해 유보나 심시숙고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기회주의자나 투쟁을 회피하는 사람이 될 여지가 높다. 그러나 집회를 치루는 것은 단속과 관련하여 사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 다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부분이다.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사는 노점상들을 집회와 투쟁에 배치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집회의 필요성과 명분이 뚜렷해야 할 것이다. 투쟁이란 유연하게 때로는 강경하게 서로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은 준비된 만큼만 싸울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를 극복해야 할 때도 있다. 지더라도 반드시 미래의 승리를 위해 투쟁을 진행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당장은 한번의 투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투쟁을 배치하여 싸움을 전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약하자면 한번의 투쟁이 일시적으로 성공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실패할 지라도 장기적으로 희망을 만드는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듯 투쟁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승리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단 한번의 투쟁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급증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대중집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투쟁과 집회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만천하에 알려내고 궁극

적으로 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또한 내적으로 우리의 결의를 모아나가고 단결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다. 모든 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전노련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첫째 중앙차원의 집회를 살펴보자

과거 정권의 탄압 방식은 전체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싸움이 단속이라는 방법을 주로 택했다. 때문에 우리의 대응은 전체 차원의 대중집회에 준한 직접적인 대응 방식을 불가피하게 택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87년 6월 항쟁의 방식이 있고 7.8월 노동자 대 투쟁이 있다. 이는 지난 시기 우리의 투쟁을 살펴보더라도 잘 나와 있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자행된 전면적인 노점탄압에 대응하여 진행된 6.13대회와, 89년 7.8월 명동성당 투쟁, 92년 포장마차 조리노점상 전면철거 대응 투쟁, 93년 노점상, 상대금지구역 철폐 및 합법화 촉구대회, 95년 최정환 열사투쟁, 96년 이덕인 열사투쟁, 97년 양승진 열사투쟁, 2000년 인천동구 투쟁 등이 그 대표적인 우리의 대대적인 투쟁이었다. 물론 이는 현재에 와서도 여전히 생존권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이다.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6.13대회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회원들을 동원하여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고

대응하는 대규모적인 집회투쟁 방식은 중요한 우리의 투쟁이다.

두 번째로 지역 차원의 집회를 살펴보자. 위와 같은 전체 차원의 대응 방식 못지 않게 우리의 집회 방식은 지역적인 대응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노련 역시 정권의 성격이 과거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단속의 현황이 바뀌어 가면서 우리의 대응 방식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차원의 대응이 주요하게 대두되었다.

세 번째로 집회 방식과 관련하여 행진과 가두투쟁이다. 사실 우리에게 열린 공간은 자본과 권력에 비하면 많지 않다. 서울지역 만해도 집회신고를 할만한 장소가 거의 없다. 공간 조차도 지배를 통하여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집회와 행진은 그 많지 않은 공간중 하나인 것이다. 때문에 행진시 선전과 선동을 방지하는 것은 주어진 공간을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행진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이 하나의 목소리와 피켓 등 다양한 선전물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행진의 양상을 보면 구호는 커녕 피켓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게 행진하는 경우가 많다. 행진 시 다양한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준비해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거리를 축제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진

의 의미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바로 투쟁의 공간인 것이다. 가두투쟁은 해당 시기 정세와 맞물려 물리적 대결의 공간이다. 가두투쟁은 기본적으로 행진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행진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합법적인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정세적 폭력에 대항해 전선을 치고 힘차게 싸우는 공간이다. 과거 80년대는 집시법으로 인해 모든 투쟁이 비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길거리에서 구호만 외쳐도 잡아가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두투쟁의 의미가 이벤트의 공간으로 축소되어 진행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폴리스라인 안에 갇혀 진행되는 이벤트 퍼포먼스의 공간을 넘어서 일대 격돌의 장이며 그곳에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생존권 시수의 경계선이다. 합법적 공간은 그 자체로 열려진 공간이지만 한편 우리를 저들의 라인에 가두는 또 다른 갇힌 공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가두투쟁을 통해 최대한 우리의 투쟁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공간 안에서 대중들에 대한 선전선동을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

집회시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집회는 간부들만의 행사가 결코 아니다. 전체 회원들이 단순히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대한 의의를 공유하고 목적 의식적으로 참여할때 만이 집회와 투쟁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집회

참여의 목적과 의의를 충분히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투쟁 지도부의 지시와 지침에 철저히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혹 투쟁시 회원들의 돌출적인 행위로 인해 오히려 공권력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지도부는 이러한 돌출적인 부분까지 감안하여 집회를 지휘하고 계획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 입각하여 지도부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서 유인물 배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회 연단 세우는 일, 포스터 배포 집회 현장에서의 선전선동 등이 그 한 예가 되겠다.

한편 지도부의 역할만큼이나 이를 수행하는 회원 역시 지도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에 따른 철저한 보위도 회원들의 역할과 임무라 하겠다. 몇가지 실무적인 준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발언과 연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설과 발언은 집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선전 선동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를 ...) 연설이 무조건 열심히 투쟁하자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연설은 무엇보다 해당 집회가 왜 열리고 있는지와 그 핵심적인 투쟁방향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중적인 언어가 구사 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발언은 선전, 특히나 선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므로 사전의 준비를 통하여 집회 참가자와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아가며 강력

한 투쟁의 결의를 모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호와 연설은 해당 집회의 모든 내용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면, 특히 집회 참가자들에게 현 시기 우리의 투쟁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는 구호를 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투쟁하는 지역은 손을 높이 올리며 힘차게 투쟁을 외치지만 기존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화된 측면이 있다. 집회 때 외쳐지는 구호를 보면 지역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집회의 내용과 해당 시기 투쟁방향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기에 생겨나는 오류다. 이런 오류는 사전교육을 통하여 극복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필수적인 준비물중 하나는 선전물이다. 우리의 주장을 가장 친근하게 알려내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유인물이다. 다른 연대 집회에 참석을 했을시 투쟁하는 노동조합이나 기타 다른 유인물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피켓, 플랭카드 등의 선전물은 집회를 선전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요소다. 그러나 많은 지역들이 집회를 나올 때 맨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피켓, 선전물 혹은 지역의 현안을 알려내는 선전물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준비도 실무자 몇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준비를 한다면 집회시 이를 활용할 때 회원들의 자부심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

그리고 나이드신 참가자들 및 지도부의 보위를 위하여 반드시 청

년시수대가 필요하다. 특히 투쟁주체는 경찰 병력의 움직임과 집회 대오의 세부 전술운용에 대해 항상 파악한다.

선봉대를 모집하게 되는 경우 지역별로 참가자들이 본대에 함께 힘차게 투쟁할 수 있도록 결의를 세운다.

이밖에 선봉대 및 청년 시수대는 집회 및 투쟁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권력과 부딪혔을 때 일부 회원들은 뒤에서 이를 지켜보거나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투쟁이다. 즉 투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봉대 혹은 시수대가 투쟁을 전개하지만 일반회원들의 힘찬 동의와 함께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회 준비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더 언급해 보자. 먼저 집회 일정과 의의를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왜 이 집회에 참여를 하는지도 모르는채 그저 단순히 동원의 대상으로 전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최소한 며칠 전에 집회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로 전노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전을 진행하고 각지역 별로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 회원들에게 집회의 취지를 알려야 한다. 집회 참가자의 조직은 의식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현시기 왜 우리는 집회에 참가하는가에 대한 공유지반을 넓혀야 한다.

특히 집회 전날이나 당일 모여 준비물을 함께 제작한다. 준비물은

피켓, 플래카드, 유인물 등의 선전물과 집회에서 외칠 구호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집회와 행진시 활발하게 선전과 선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집회라 그런지 항상적으로 긴장감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선전물은 휴지통으로 들어가거나 깔판이 되어 뒹군다. 집회 중간 중간 선전선동을 수행하고 미리 준비한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집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회가 끝난 다음 모습 살펴보자. 수많은 쓰레기와 휴지 그리고 심지어는 술병까지 난무하는 집회자리, 이래서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을 갖을 수 없다.

뒷정리와 마무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타 중앙도 부상자에 대한 확인, 참가자 각각이 무엇을 느꼈는가와 이후 투쟁일정 및 방향에 대한 공유 등 각 지역별 정리집회를 통해 결의를 다져야 한다.